Requiem Canticles

- □□

정보

Igor Stravinsky: Requiem

Canticles

작곡가: Igor Stravinsky (1882–1971)
작품명: Requiem Canticles (K106, IIS 93)
장르: 독창 ·혼성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레퀴엠 발췌곡
작곡 시기: 1965–1966년
초연: 1966년 10월 8일, Princeton McCarter Theater, Robert Craft 지휘
초판: 1967년, Boosey & Hawkes (plate B. & H. 19518)
IMSLP: https://imslp.org/wiki/Requiem_Canticles,K106(Stravinsky,_Igor)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Requiem_Canticles

스트라빈스키의 Requiem Canticles는 라틴어 레퀴엠 미사의 일부를 아홉 개의 짧은 구간으로 엮은 후기 작품이다. 전체 미사곡을 그대로 작곡한 것이 아니라, 여섯 성악 구간을 세 기악 구간이 앞 ·가운데 ·뒤에서 감싼다. 12음 기법의 절제된 음향 속에서 현악의 Prelude, 관악의 Interlude, 타악 ·건반의 Postlude 가 서로 다른 색을 만들며, 약 15분 안에 애도와 침묵을 응축한다.

개요
프린스턴의 후원자 Stanley Seeger Jr.는 어머니 Helen Buchanan Seeger를 기리기 위한 작품을
스트라빈스키에게 의뢰했다. 1965년 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작곡을 시작했고, 1966년 8월 13일
할리우드에서 완성했다. 초연은 1966년 10월 8일 프린스턴의 McCarter Theater에서 Robert Craft의 지휘로 열렸으며, 초연 사흘 뒤 뉴욕에서 첫 녹음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스트라빈스키는 완성 직후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pocket-Requiem”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짧은
길이와 작은 악구가 작품의 규모를 뜻할 뿐, 애도의 감정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라틴어 기도문의 단편, 12음 음렬, 세 기악 구간의 침묵이 서로 맞물리며 압축된 장례 음악을 만든다.

출판 정보와 자료

Boosey & Hawkes가 1967년 런던에서 초판을 냈다 (plate B. & H. 19518). IMSLP에는 Prelude, Exaudi, Dies irae, Tuba mirum, Interlude, Rex tremendae, Lacrimosa, Libera me, Postlude 의 아홉 구간과

라틴어 가사가 정리되어 있다. 공개 목록에는 총보 스캔 한 건이 있고, 별도 파트 자료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14–15분이다. IRCAM과 Caltech의 작품 등록은 약 15분, IMSLP는 14–15분, AllMusic은 평균 13 분 54초로 안내한다. 연주 속도와 녹음 편집에 따라 몇십 초의 차이가 난다.

편성

독창 ·합창: 콘트랄토, 베이스 독창, SATB 혼성합창
목관: 플루트 3(제 3은 피콜로 겸주), 알토 플루트,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타악기: 팀파니, 두 명의 타악기 연주자 (종 ·실로폰 ·비브라폰 등)
기타: 하프, 피아노, 첼레스타, 현악기 (6·5·4·3·2)

오보에와 클라리넷은 확인된 기준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악 구간마다 중심 악기군이 달라 Prelude 는 현악, Interlude 는 관악, Postlude 는 건반 ·하프 ·타악과 현악의 결합이 두드러진다 .

구성과 텍스트

I. Prelude

현악으로 시작하는 짧은 기악 구간이다. 낮은 음역과 절제된 반복이 기도문이 나오기 전의 정적을 만들며, 뒤따를 성악의 음향을 미리 암시한다. 긴 선율을 노래하기보다 음 사이의 간격과 침묵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II. Exaudi

라틴어로 “들으소서 ”를 청하는 성악 구간이다. 콘트랄토와 베이스의 낮은 음역이 합창과 교대하며, 짧은 음렬 동기가 기도문의 호소를 여러 방향으로 나눈다. 합창은 거대한 낭송보다 조각난 발화에 가깝게 들린다.

III. Dies irae

심판의 날을 노래하는 레퀴엠 텍스트가 빠른 음절과 단호한 음정으로 제시된다. 스트라빈스키는 전체 라틴어 시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구절을 잘라 배치해, 말의 뜻과 음향의 긴장을 함께 압축한다.

IV. Tuba mirum

“놀라운 나팔 ”을 부르는 구간이다. 금관의 울림과 성악의 짧은 응답이 심판의 이미지를 넓히지만, 장엄한 행진보다 간결한 신호에 가깝다. 앞의 Dies irae 와 이어지면서도 독립된 텍스트 단위를 이룬다.

V. Interlude

관악이 중심이 되는 기악 구간으로, 여섯 성악 부분 사이의 구조적 경첩 역할을 한다. Anthony Payne은 세 기악 구간이 성악 구간을 앞 ·가운데 ·뒤에서 나눈다고 설명한다. 이 부분의 음향은 합창을 흉내 내기보다 차갑고 투명한 관악의 결을 남긴다.

VI. Rex tremendae

두려운 왕을 부르는 라틴어 텍스트가 낮은 성악과 금관의 무게로 펼쳐진다. 짧은 음형이 반복될 때마다 기도는 개인의 탄원에서 집단의 발화로 바뀐다. 12음 기법은 화성을 지우기보다 음역과 반복의 방향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VII. Lacrimosa

눈물의 날을 노래하는 느린 성악 구간이다. 콘트랄토와 베이스의 선율이 합창과 겹치며, 음 사이의 간격과
정적이 애도의 시간을 늘린다. 짧은 길이 안에서도 앞선 심판의 언어가 개인적인 슬픔으로 가라앉는다 .

VIII. Libera me

마지막 성악 구간은 “나를 구하소서 ”라는 기도다. 레퀴엠의 응답문에서 가져온 구절이 독창과 합창 사이를 오가며, 이전 구간의 단호한 리듬이 점차 느슨해진다 . 완전한 해소보다 다음 침묵을 준비하는 종결에 가깝다.

IX. Postlude

피아노 ·하프 ·첼레스타와 타악, 현악이 마지막 기악 구간을 만든다. 종과 비브라폰의 잔향이 남은 뒤, 음악은 긴 침묵으로 가라앉는다 . Robert Craft는 이 부분의 소리와 침묵을 죽음과 종소리에 비유했다고 전해지지만 , 그 말은 후대 해설에 실린 연주자의 해석이다.

텍스트와 12음 양식
작품은 로마 가톨릭 레퀴엠 미사의 라틴어에서 발췌했지만 Requiem aeternam 을 포함한 완전한 통상문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Anthony Payne은 Introit, Dies irae, Responsory 에서 가져온 여섯 성악 구간과 세 기악 구간의 배열을 설명한다. Dies irae 의 여러 구절이 반복되면서 심판과 탄원의 말이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브리태니커와 Brian Wise는 이 작품을 스트라빈스키 후기의 12음 ·serial 양식과 연결한다. 음렬은 선율을 없애기보다 음정의 순서와 반복을 제한해, 낮은 성악 ·합창 ·금관의 색을 한정된 재료 안에 배치한다. 러시아 정교회의 종소리를 그대로 인용한 작품은 아니지만, 후기 스트라빈스키가 과거의 종교적 기억과 현대 기법을 함께 다룬 사례로 읽을 수 있다.

세 기악 구간의 틀

Prelude – Interlude – Postlude 는 현악 ·관악 ·타악이라는 서로 다른 중심을 가진다. 스트라빈스키가 이 세 부분을 삼각형의 기악 틀로 설명했다고 TŌN의 해설은 전한다. 성악 구간은 이 틀 안에 대칭적으로 놓이며, 작품은 긴 전개 대신 짧은 기도와 기악의 침묵을 교대로 보여 준다.

초연과 연주

초연 관련 자료에는 콘트랄토 ·베이스 두 독창 성부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명의 실제 성악가 명단이 함께 전해진다. 전자는 출판사와 작품 데이터가 제시하는 기준 편성이고, 후자는 1966년 프린스턴 공연에 참여한 목소리 목록이다. Robert Craft는 지휘와 초연용 파트 준비를 맡았으며, 리허설에서 호른 조옮김과
바순 음자리표 등의 오류를 고쳤다는 회고가 있다.

1966년 초연 날짜는 일부 후대 회고에서 다르게 적히지만, IRCAM·IMSLP·Caltech·초연 관계자의 구술 기록은 10월 8일 프린스턴 공연을 가리킨다. 작품의 초연과 1971년 베네치아에서 열린 스트라빈스키 장례의 연주는 서로 다른 사건이다. 장례 연주는 작품의 후대 수용을 보여 주지만, 라틴어 텍스트의 원전이나 초연 형식을 바꾸지는 않는다.

판본과 연주

현재 공개된 악보는 Boosey 초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목록 자료가 중심이다. Bells, chimes, tubular bells의 명칭과 타악기 파트의 세부 배분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지휘자는 사용한 총보의 파트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큰 편성이지만 악기군이 모두 동시에 폭발하지 않으며, 각 기악 구간의 중심 음색과 성악의 침묵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레코딩

Robert Craft / Philharmonia Orchestra (Deutsche Grammophon): 스트라빈스키 후기
작품을 가까이 다룬 지휘자의 녹음으로, 성악과 세 기악 구간의 긴밀한 구조를 들을 수 있다.
Oliver Knussen / London Sinfonietta·New London Chamber Choir (Deutsche Grammophon E4470682): Boosey가 추천하는 녹음으로, 투명한 합창과 소규모처럼 들리는
관현악 색채가 특징이다.
Robert Craft / 후대 성악 ·관현악진 (The American Scholar에 소개된 녹음): Sally Burgess와 Roderick Williams가 참여한 사례로, 현대 음질로 라틴어 발화와 저음 성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자료

IRCAM, Requiem Canticles: 작곡 ·초연 ·편성 ·소요 시간.

IMSLP, Requiem Canticles, K106: 아홉 구간, 라틴어 텍스트, 초판 ·편성 목록.

Boosey & Hawkes, Requiem Canticles: 위촉 ·헌정 ·초연 ·출판 ·추천 음반.

Caltech, Requiem Canticles 등록 자료: 1965년 초안, 1966년 완성 ·초연.

Cambridge Core, Anthony Payne, Requiem Canticles: 여섯 성악 구간과 세 기악 구간의 구조.

TŌN, Stravinsky’s Requiem Canticles: 작곡가 발언 재인용과 Prelude · Interlude · Postlude 해설.

The American Scholar, A Requiem of One’s Own: 의뢰 배경 ·후기 양식 ·음반과 장례 수용.